

기타 열대과일의 세계 생산 및 교역 현황: 아보카도, 파파야, 코코넛

신 유 선 *

1. 서론

세계 과일 재배면적은 2000년 8,936만 8,000ha에서 2016년 1억 1,418만 3,000ha로 27.8% 확대되었으며, 이 같은 재배면적 증가와 재배기술 향상에 따라 생산량은 2000년 8억 6,454만 6,000톤에서 2016년 14억 1,124만 5,000톤으로 63.2% 증가하였다. 세계 열대과일 재배면적은 2000년 3,854만 ha에서 2016년 5,565만 ha로 44.4% 늘었고, 생산량은 2000년 3억 4,131만 7,000톤에서 2016년 6억 3,118만 7,000톤으로 84.9% 증가하여 과일 전체에 비해 성장 속도가 빠른 편이다.

<표 1> 세계 열대과일 생산 동향

단위: 천 ha, 천 톤

구분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6
과일 전체	재배면적	89,368	96,975	104,622	112,090	114,183
	생산량	864,546	1,036,297	1,198,406	1,395,655	1,411,245
열대과일 전체	재배면적	38,540	44,033	49,566	54,375	55,650
	생산량	341,317	443,351	525,375	631,696	631,187
기타 열대과일	재배면적	11,344	11,783	12,600	13,053	13,175
	생산량	61,163	69,074	74,768	76,667	77,628

주: 기타 열대과일은 아보카도, 파파야, 코코넛을 합한 것임.

자료: FAO STAT(<https://www.fao.org/faostat>).

이처럼 세계적으로 열대과일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열대과일 중에서 최근 우리나라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아보카도와 파파야, 코코넛의 세계 재배면적은 2000년 1,134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shynsl@kreire.kr). 본고는 FAO STAT와 UN Comtrade 홈페이지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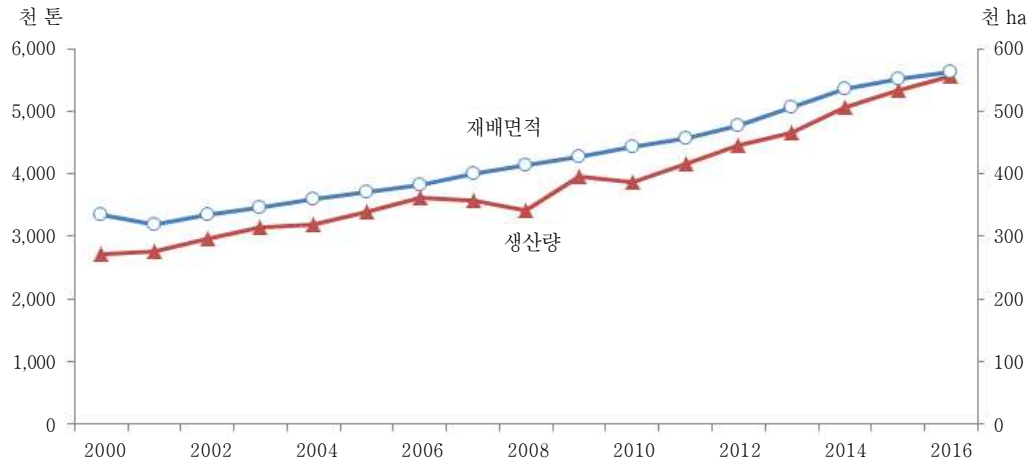
4,000ha에서 2016년 1,317만 5,000ha로 16.1%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열대과일 수입량은 지난 17년간(2000~2016년) 120.7% 증가하였으며¹⁾, 기타 열대과일인 아보카도, 파파야, 코코넛은 아직까지 수입 물량이 많지 않지만 최근 5년간 445.8%, 115.3%, 83.4%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세계 기타 열대과일(아보카도, 파파야, 코코넛)의 생산 및 교역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이들 열대과일의 수입 동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2. 기타 열대과일 생산 동향

2.1. 아보카도 생산 동향

우리나라 수입과일 중에서 최근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아보카도는 ‘숲속의 버터’라고 불리며 기네스북이 선정한 수퍼푸드 중 하나로 꼽힌다. 세계 40여개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되고 있는 아보카도는 <그림 1>과 같이 지난 17년간(2000~2016년) 재배면적이 연평균 0.9%로 완만히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늘면서 연평균 1.5%로 증가하고 있다. 2008년은 태풍 피해로 생산량이 전년대비 4.1% 감소하였다.

<그림 1> 세계 아보카도 생산 추이(2000-2016)



자료: FAO STAT(<https://www.fao.org/faostat>).

1) 한국무역협회에서 0803, 0804, 0810.60 품목코드 검색하여 합산한 것임.

2.1.1. 재배면적

2016년 기준 세계 아보카도 재배면적은 56만 4,000ha로 전년 대비 1.9% 증가하였다. 아보카도의 주요 재배지역은 멕시코(32.0%), 페루(6.7%), 콜롬비아(6.2%), 칠레(5.3%) 등으로 상위 5개국의 아보카도 재배면적이 전 세계 재배면적의 54.5%를 차지하며, 상위 10개국의 재배면적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1.3%이다.

<표 2> 국가별 아보카도 재배면적 동향

단위: 천 ha

국가명	2012	2013	2014	2015	2016	비중
전 세계	478	506	537	553	564	100.0
멕시코	130	144	154	167	181	32.0
페루	22	26	30	34	38	6.7
콜롬비아	28	32	35	36	35	6.2
칠레	36	36	32	30	30	5.3
인도네시아	21	21	24	30	24	4.2
미국	25	25	24	24	23	4.1
중국	17	17	18	19	20	3.6
에티오피아	9	11	14	14	18	3.2
카메룬	15	16	16	16	17	3.0
남아프리카	17	16	20	17	17	2.9
아이티	14	15	17	17	16	2.8
호주	10	11	9	10	14	2.5
도미니카공화국	11	13	13	13	13	2.4
파테말라	9	10	10	11	12	2.1
스페인	11	11	11	11	11	2.0
브라질	10	10	9	10	11	1.9
케냐	11	11	12	8	10	1.8
콩고	9	9	9	9	9	1.6
이스라엘	6	7	8	8	8	1.5
베네주엘라	10	10	11	11	8	1.4

주: 1) 2016년 기준 재배면적이 큰 20개 국가 순으로 정렬함.

2) 비중은 2016년 전 세계에서 해당 국가의 재배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FAO STAT(<https://www.fao.org/faostat>).

2.1.2. 생산량

세계 아보카도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생산량은 556만 7,000톤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하였다. 국가별로 아보카도 생산량을 살펴보면, 최대 생산국인 멕시코가 188만 9,000톤으로 전 세계의 1/3을 차지하며, 상위 5개국의 아보카도 생산량이 전 세계 생산량의 64.0%를 차지한다.

<표 3> 국가별 아보카도 생산 동향

단위: 천 톤

국가명	2012	2013	2014	2015	2016	비중
전 세계	4,456	4,670	5,074	5,347	5,567	100.0
멕시코	1,316	1,468	1,521	1,644	1,889	33.9
도미니카공화국	290	388	428	526	601	10.8
페루	269	288	349	367	455	8.2
콜롬비아	255	295	289	310	309	5.6
인도네시아	294	290	307	383	305	5.5
브라질	160	157	157	181	195	3.5
케냐	167	178	219	136	176	3.2
미국	238	166	179	203	173	3.1
칠레	160	165	160	146	137	2.5
중국	108	112	116	118	123	2.2
과테말라	95	104	108	115	122	2.2
이스라엘	78	80	91	93	102	1.8
아이티	80	88	97	99	93	1.7
베네주엘라	117	113	122	129	90	1.6
스페인	76	69	77	87	88	1.6
남아프리카	92	84	107	86	86	1.6
카메룬	72	74	67	69	70	1.3
호주	49	53	44	49	68	1.2
콩고	67	65	65	65	65	1.2
에티오피아	26	18	54	59	65	1.2

주: 1) 2016년 기준 생산량이 많은 20개 국가 순으로 정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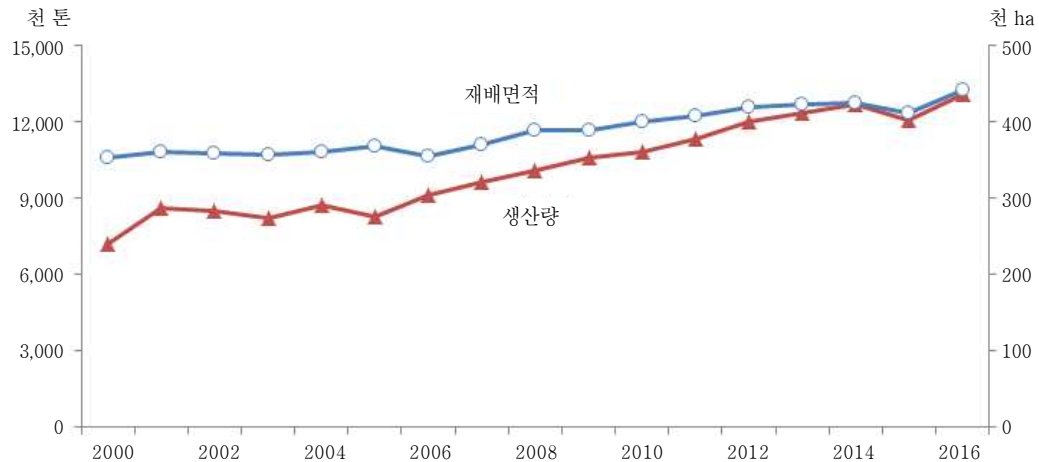
2) 비중은 2016년 전 세계에서 해당 국가의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FAO STAT(<https://www.fao.org/faostat>).

2.2. 파파야 생산 동향

지난 17년간(2000~2016년) 세계 파파야 재배면적은 연평균 1.5%로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연평균 3.9%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파파야 생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파파야 연간 수입량은 100톤 내외로 미미하다.

<그림 2> 세계 파파야 생산 추이(2000~2016)



자료: FAO STAT(<https://www.fao.org/faostat>).

2.2.1. 재배면적

2016년 기준 세계 파파야 재배면적은 44만 2,000ha로 전년 대비 7.5% 증가하였다. 파파야 주요 재배지역은 인도가 13만 3,000ha(30.1%)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나이지리아(22.1%), 브라질(6.9%), 방글라데시(5.0%) 등의 순이다. 상위 5개국의 파파야 재배면적이 전 세계 재배면적의 67.9%를 차지하며, 상위 10개국의 재배면적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2%이다.

<표 4> 국가별 파파야 재배면적 동향

단위: 천 ha

국가명	2012	2013	2014	2015	2016	비중
전 세계	420	423	424	411	442	100.0
인도	132	135	133	115	133	30.1
나이지리아	95	94	94	93	98	22.1
브라질	31	32	32	31	30	6.9
방글라데시	21	21	22	29	22	5.0

(계속)

국가명	2012	2013	2014	2015	2016	비중)
멕시코	14	15	15	16	17	3.8
콩고	13	13	13	13	13	2.9
페루	10	12	12	11	12	2.8
말리	2	2	3	3	11	2.4
인도네시아	12	11	9	10	10	2.3
케냐	9	9	9	9	9	2.0
베네주엘라	9	10	9	9	9	2.0
중국	7	7	7	8	8	1.9
필리핀	9	8	8	8	8	1.8
쿠바	6	6	7	6	8	1.7
코트디부아르	5	5	6	6	6	1.4
콜롬비아	5	5	5	5	6	1.3
태국	4	5	5	5	6	1.3
말레이시아	7	4	4	4	4	1.0
모잠비크	2	2	3	3	4	1.0
에콰도르	5	4	4	4	4	1.0

주: 1) 2016년 기준 재배면적이 큰 20개 국가 순으로 정렬함.

2) 비중은 2016년 전 세계에서 해당 국가의 재배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FAO STAT(<https://www.fao.org/faostat>).

2.2.2. 생산량

파파야 최대 생산국은 재배면적이 가장 큰 인도로 2016년 기준 569만 9,000톤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43.7%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주요 생산국은 브라질(10.9%), 멕시코(7.3%), 인도네시아(6.9%), 도미니카공화국(6.6%) 등의 순이다.

<표 5> 국가별 파파야 생산 동향

단위: 천 톤

국가명	2012	2013	2014	2015	2016	비중
전 세계	12,014	12,359	12,699	12,077	13,051	100.0
인도	5,382	5,544	5,639	4,913	5,699	43.7
브라질	1,518	1,583	1,603	1,481	1,425	10.9
멕시코	713	765	836	884	952	7.3
인도네시아	906	910	840	851	904	6.9
도미니카공화국	521	532	705	758	863	6.6
나이지리아	775	800	850	871	837	6.4
콩고	225	215	217	216	215	1.6
쿠바	179	198	140	202	213	1.6

(계속)

국가명	2012	2013	2014	2015	2016	비중)
콜롬비아	144	168	155	176	188	1.4
태국	206	170	158	167	170	1.3
페루	124	150	148	145	169	1.3
필리핀	165	166	173	173	162	1.2
베네수엘라	178	185	175	175	161	1.2
중국	166	153	151	152	157	1.2
방글라데시	120	125	131	133	130	1.0
케냐	134	133	125	123	128	1.0
타이완	133	119	116	115	119	0.9
코스타리카	80	80	90	90	100	0.8
과테말라	61	60	70	85	97	0.7
말레이시아	36	32	55	61	66	0.5

주 1) 2016년 기준 생산량이 많은 20개 국가 순으로 정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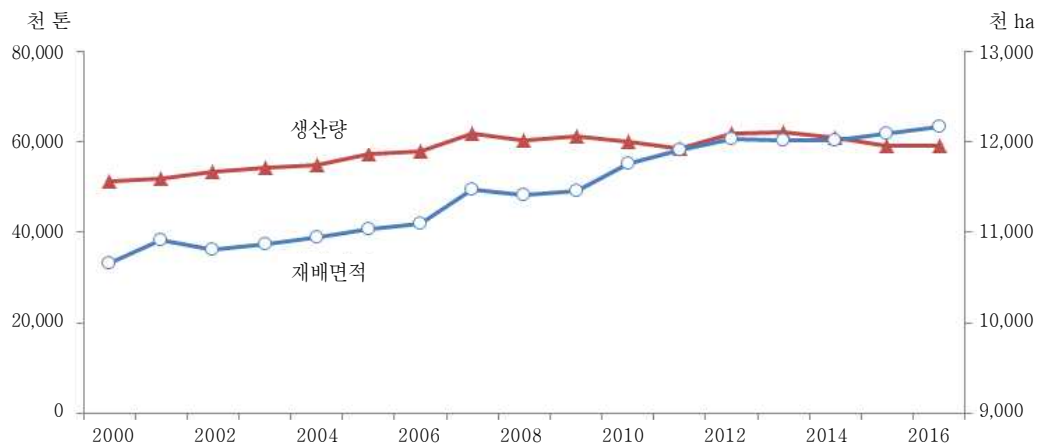
2) 비중은 2016년 전 세계에서 해당 국가의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FAO STAT(<https://www.fao.org/faostat>).

2.3. 코코넛 생산 동향

<그림 3>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세계 코코넛 재배면적은 2000~2016년간 연평균 0.8%로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연평균 0.9%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코코넛 생산은 완만히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코코넛 연간 수입량은 1,600톤 수준으로 많지 않다.

<그림 3> 세계 코코넛 생산 추이(2000~2016)



자료: FAO STAT(<https://www.fao.org/faostat>).

2.3.1. 재배면적

2016년 기준 세계 코코넛 재배면적은 1,216만 9,000ha로 전년 대비 0.7% 증가하였다. 코코넛의 주요 재배지역은 필리핀으로 전 세계 재배면적의 29.3%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인도네시아(25.5%), 인도(17.7%), 탄자니아(6.0%), 스리랑카(3.4%) 등의 순이다. 상위 5개국의 코코넛 재배면적이 전 세계 재배면적의 81.9%를 차지하며, 상위 10개국의 재배면적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9.7%이다.

<표 6> 국가별 코코넛 재배면적 동향

단위: 천 ha

국가명	2012	2013	2014	2015	2016	비중
전 세계	12,028	12,024	12,022	12,088	12,169	100.0
필리핀	3,575	3,551	3,502	3,518	3,565	29.3
인도네시아	3,000	3,020	3,025	3,030	3,105	25.5
인도	2,137	2,159	2,140	2,164	2,156	17.7
탄자니아	680	680	709	725	732	6.0
스리랑카	417	395	440	453	409	3.4
브라질	258	257	251	242	234	1.9
파푸아뉴기니	221	221	214	208	208	1.7
멕시코	176	176	179	181	184	1.5
태국	213	209	207	192	177	1.5
베트남	132	136	139	146	147	1.2
코트디부아르	73	85	95	105	113	0.9
바누아투	92	92	92	93	94	0.8
모잠비크	84	83	81	86	90	0.7
말레이시아	101	88	88	82	85	0.7
가나	60	60	60	60	60	0.5
피지	65	60	62	60	60	0.5
솔로몬제도	53	53	52	52	52	0.4
도미니카공화국	41	48	49	50	50	0.4
미얀마	48	48	49	48	49	0.4
케냐	42	39	39	43	47	0.4

주: 1) 2016년 기준 재배면적이 큰 20개 국가 순으로 정렬함.

2) 비중은 2016년 전 세계에서 해당 국가의 재배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FAO STAT(<https://www.fao.org/faostat>).

2.3.2. 생산량

2016년 기준 세계 코코넛 생산량은 재배면적은 늘었으나 작황이 좋지 않아 5,901만 1,000톤으로 전년 대비 0.4% 감소하였다. 국가별로 코코넛 생산량을 살펴보면, 재배면적이 두 번째로 큰 인도네시아가 1,772만 2,000톤으로 전 세계의 30.0%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필리핀(23.4%), 인도(18.9%), 브라질(4.5%) 등의 순이다.

<표 7> 국가별 코코넛 생산 동향

단위: 천 톤

국가명	2012	2013	2014	2015	2016	비중
전 세계	61,876	62,069	60,977	59,242	59,011	100.0
인도네시아	19,400	18,300	18,300	16,600	17,722	30.0
필리핀	15,864	15,354	14,696	14,735	13,825	23.4
인도	10,560	11,930	11,079	11,210	11,128	18.9
브라질	2,932	2,890	2,919	2,679	2,649	4.5
스리랑카	2,225	2,513	2,870	2,844	2,520	4.3
베트남	1,273	1,304	1,374	1,439	1,470	2.5
파푸아뉴기니	1,210	1,208	1,179	1,166	1,191	2.0
멕시코	1,118	1,171	1,172	1,157	1,157	2.0
태국	1,057	1,010	1,000	904	815	1.4
탄자니아	520	530	540	553	556	0.9
미얀마	491	510	509	520	532	0.9
말레이시아	624	625	595	506	505	0.9
가나	345	366	380	380	380	0.6
도미니카공화국	161	287	334	369	374	0.6
솔로몬제도	384	384	384	379	342	0.6
바누아투	358	395	332	333	337	0.6
중국	271	280	307	299	317	0.5
나이지리아	265	266	268	270	284	0.5
자메이카	241	237	234	261	255	0.4
모잠비크	270	260	248	251	248	0.4

주: 1) 2016년 생산량이 많은 20개 국가 순으로 정렬함.

2) 비중은 2016년 전 세계에서 해당 국가의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FAO STAT(<https://www.fao.org/faostat>).

3. 기타 열대과일 교역 현황

3.1. 아보카도

3.1.1. 수출 동향

최근 5년간(2012~2016년) 세계 아보카도의 평균 수출량은 140만 톤으로 연평균 15.3% 증가하였다. 아보카도의 주요 수출국은 멕시코로 전 세계 수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페루(10.6%), 네덜란드(8.1%), 칠레(8.0%) 등의 순이다. 상위 5개국의 아보카도 수출량은 전 세계 수출량의 82.4%를 차지하며, 상위 10개국의 수출량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3.1%이다.

<표 8> 국가별 아보카도(신선/건조) 수출 동향

단위: 천 톤

국가명	2012	2013	2014	2015	2016	비중
전 세계	1,034	1,204	1,388	1,562	1,829	100.0
멕시코	494	563	649	864	927	50.7
페루	84	115	179	176	194	10.6
네덜란드	78	90	107	109	148	8.1
칠레	91	88	112	90	147	8.0
스페인	60	63	74	82	92	5.0
미국	29	43	37	38	60	3.3
남아프리카	55	51	66	49	58	3.2
도미니카공화국	17	21	19	15	26	1.4
뉴질랜드	13	14	29	19	26	1.4
이스라엘	42	62	35	24	25	1.4
프랑스	18	15	19	19	20	1.1
벨기에	6	9	11	14	19	1.0
콜롬비아	0	1	2	6	18	1.0
독일	5	5	6	11	12	0.7
홍콩	2	1	1	5	12	0.6
모로코	2	2	8	8	6	0.3
브라질	4	4	6	5	5	0.3
탄자니아	1	1	2	3	4	0.2
과테말라	3	4	4	4	4	0.2

주: 1) 2016년 기준 수출량이 많은 20개 국가 순으로 정렬함.

2) 비중은 2016년 전 세계에서 해당 국가의 수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

3.1.2. 수입 동향

최근 5년간(2012~2016년) 세계 아보카도의 평균 수입량은 151만 톤으로 연평균 14.5% 증가하였다. 아보카도의 주요 수입국은 미국으로 전 세계 수입량의 43.1%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네덜란드(9.8%), 프랑스(7.1%), 영국(5.0%) 등의 순이다. 상위 5개국의 아보카도 수입량은 전 세계 수입량의 69.5%를 차지하며, 상위 10개국의 수입량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3.4%이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아보카도 수입량은 2,915톤으로 세계에서 35번째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54.4%씩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표 9> 국가별 아보카도(신선/건조) 수입 동향

단위: 천 톤

국가명	2012	2013	2014	2015	2016	비중
전 세계	1,110	1,261	1,537	1,757	1,904	100.0
미국	503	572	729	867	821	43.1
네덜란드	95	115	143	144	186	9.8
프랑스	95	100	119	116	134	7.1
영국	38	41	53	77	96	5.0
스페인	34	41	53	61	87	4.6
캐나다	49	57	61	70	78	4.1
일본	59	60	58	58	74	3.9
독일	29	31	38	48	58	3.1
벨기에	13	15	17	20	29	1.5
중국	0	1	4	16	25	1.3
호주	11	13	22	17	21	1.1
스웨덴	19	20	19	18	19	1.0
사우디아라비아	7	10	10	17	18	0.9
아랍에미리트연합	7	10	13	16	17	0.9
이탈리아	5	6	9	11	14	0.7
스위스	7	8	10	11	14	0.7
덴마크	12	10	11	14	14	0.7
아르헨티나	9	10	13	11	13	0.7
엘살바도르	14	13	12	12	13	0.7
한국	0.5	0.7	1.1	1.5	2.9	0.2

주: 1) 2016년 기준 수입량이 많은 20개 국가 순으로 정렬함.

2) 비중은 2016년 전 세계에서 해당 국가의 수입량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

3.2. 파파야

3.2.1. 수출 동향

최근 5년간(2012~2016년) 세계 파파야 평균 수출량은 33만 톤 내외이다. 파파야의 최대 수출국은 멕시코로 전 세계 수출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과테말라(14.4%), 브라질(11.0%) 등의 순이다. 상위 5개국의 파파야 수출량은 전 세계 수출량의 85.0%를 차지하며, 상위 10개국의 수출량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4.0%이다.

<표 10> 국가별 파파야(신선) 수출 동향

단위: 천 톤

국가명	2012	2013	2014	2015	2016	비중
전 세계	295	324	320	347	345	100.0
멕시코	108	115	131	146	169	48.9
과테말라	22	32	28	40	50	14.4
브라질	26	29	34	40	38	11.0
말레이시아	21	24	24	24	24	7.1
인도	19	11	11	12	12	3.5
중국	6	7	6	9	9	2.5
브라질	43	57	34	31	8	2.2
네덜란드	6	5	6	8	7	2.2
코스타리카	3	4	5	2	4	1.1
도미니카공화국	4	3	3	3	4	1.1
스리랑카	1	1	3	3	3	1.0
에콰도르	9	4	4	4	3	0.9
스페인	2	2	2	1	2	0.6
자메이카	2	1	1	1	2	0.5
필리핀	3	6	5	1	2	0.5
포르투갈	0	0	1	1	1	0.4
남아프리카	1	1	1	1	1	0.4
에티오피아	0	1	1	1	1	0.3
태국	1	0	1	1	1	0.3
독일	0	1	1	1	1	0.3

주: 1) 2016년 기준 수출량이 많은 20개 국가 순으로 정렬함.

2) 비중은 2016년 전 세계에서 해당 국가의 수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

3.2.2. 수입 동향

최근 5년간(2012~2016년) 세계 파파야 평균 수입량은 30만 4,000톤 수준이다. 파파야의 최대 수입국은 미국으로 전 세계 수입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싱가포르(7.0%), 엘살바도르(5.0%), 캐나다(4.6%) 등의 순이다. 상위 5개국의 파파야 수입량은 전 세계 수입량의 77.9%를 차지하며, 상위 10개국의 수입량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9.8%이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파파야 수입량은 116톤(51번째)으로 미미하다.

<표 11> 국가별 파파야(신선) 수입 동향

단위: 천 톤

국가명	2012	2013	2014	2015	2016	비중
전 세계	268	275	292	332	352	100.0
미국	142	155	159	186	205	58.2
싱가포르	32	23	24	26	25	7.0
엘살바도르	10	12	12	16	18	5.0
캐나다	15	17	16	15	16	4.6
독일	7	8	11	13	11	3.1
아랍에미리트	6	7	9	11	11	3.0
네덜란드	7	7	9	11	10	2.8
포르투갈	5	6	7	7	8	2.2
스페인	5	5	6	7	7	2.0
영국	5	5	6	7	7	2.0
네팔	3	3	3	3	4	1.1
이탈리아	2	2	2	3	3	0.8
홍콩	4	3	4	3	3	0.8
사우디아라비아	2	2	2	2	3	0.8
프랑스	2	2	2	2	2	0.7
카타르	0	1	0	1	2	0.6
스위스	2	2	2	2	2	0.6
바레인	1	1	1	1	1	0.4
브루나이	0	1	1	1	1	0.4
오멘	0	0	0	0	1	0.3
한국	0.05	0.06	0.12	0.18	0.12	0.03

주: 1) 2016년 기준 수입량이 많은 20개 국가 순으로 정렬함.

2) ()는 전 세계에서 해당 국가의 수입량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

3.3. 코코넛

3.3.1. 수출 동향

최근 5년간(2012~2016년) 세계 코코넛의 평균 수출량은 42만 3,000톤으로 연평균 19.8%로 증가하였다. 코코넛의 주요 수출국은 인도네시아로 전 세계 수출량의 22.3%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인도(20.1%), 태국(13.9%), 말레이시아(11.1%), 베트남(10.7%) 등의 순이다. 상위 5개국의 코코넛 수출량은 전 세계 수출량의 78.1%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상위 10개국의 수출량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4.1%이다.

<표 12> 국가별 코코넛(신선/건조) 수출 동향

단위: 천 톤

국가명	2012	2013	2014	2015	2016	비중
전 세계	290	389	451	414	569	100.0
인도네시아	80	77	106	89	127	22.3
인도	63	71	59	68	114	20.1
태국	46	51	61	83	79	13.9
말레이시아	18	53	48	45	63	11.1
베트남	0	60	70	33	61	10.7
가나	0	2	0	0	38	6.6
네덜란드	13	11	34	15	15	2.6
멕시코	12	14	14	17	15	2.6
가이아나	12	10	19	14	13	2.3
홍콩	1	2	4	8	11	1.9
필리핀	3	4	2	4	6	1.0
스리랑카	15	1	3	4	5	0.9
미국	4	4	3	4	4	0.6
모잠비크	1	1	9	12	2	0.4
프랑스	1	1	1	1	2	0.3
싱가포르	0	2	2	1	2	0.3
벨기에	1	1	1	1	1	0.2
이탈리아	0	0	0	1	1	0.2
스페인	2	2	3	3	1	0.2
브라질	0	0	0	1	1	0.2

주: 1) 2016년 기준 수출량이 많은 20개 국가 순으로 정렬함.

2) 비중은 2016년 전 세계에서 해당 국가의 수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

3.3.2. 수입 동향

최근 5년간(2012~2016년) 세계 코코넛의 평균 수입량은 43만 1,000톤으로 연평균 22.4% 증가하였다. 코코넛의 주요 수입국은 태국으로 전 세계 수입량의 1/3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말레이시아(25.2%), 미국(8.7%), 아랍에미리트(7.9%) 등의 순이다. 상위 5개국의 코코넛 수입량은 전 세계 수입량의 78.3%를 차지하며, 상위 10개국의 수입량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7.9%이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코코넛 수입량은 1,600톤으로 세계에서 23번째이다.

<표 13> 국가별 코코넛(신선/건조) 수입 동향

단위: 천 톤

국가명	2012	2013	2014	2015	2016	비중
전 세계	273	443	368	554	519	100.0
태국	27	38	89	114	172	33.1
말레이시아	70	25	68	208	130	25.2
미국	48	43	44	49	45	8.7
아랍에미리트	28	28	35	36	41	7.9
홍콩	8	8	9	15	18	3.5
네덜란드	13	14	14	16	15	2.9
싱가포르	0	12	13	12	12	2.3
영국	7	6	9	9	11	2.1
네팔	4	4	5	3	6	1.2
호주	3	5	6	7	6	1.1
캐나다	5	5	4	5	5	1.0
사우디아라비아	3	3	4	5	5	1.0
독일	4	5	5	5	5	0.9
스페인	2	2	3	2	4	0.9
프랑스	3	2	2	3	4	0.7
이탈리아	3	3	3	4	3	0.7
파키스탄	6	2	3	1	3	0.5
부르키나파소	1	0	0	0	3	0.5
벨기에	1	1	1	2	2	0.5
바레인	1	1	2	1	2	0.4
한국	0.9	0.8	1.6	2.0	1.6	0.3

주: 1) 2016년 기준 수입량이 많은 20개 국가 순으로 정렬함.

2) 비중은 2016년 전 세계에서 해당 국가의 수입량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

4. 요약 및 결론

세계적으로 열대과일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수입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아보카도의 세계 재배면적은 최근 5년간(2012~2016년) 17.9% 증가하였고, 파파야와 코코넛은 같은 기간 각각 5.3%, 1.2%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의 열대과일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열대과일 수입량은 44만 톤 내외로 2.8%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기타 열대과일인 아보카도, 파파야, 코코넛 수입량은 같은 기간 각각 445.8%, 115.3%, 83.4%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 같은 열대과일 증가는 해외여행 확대와 대형유통매장 증가 등의 영향으로 과거에 비해 다양한 열대과일을 접할 기회가 많아져 수요가 증대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근 아보카도 수입이 급증한 것은 웰빙(Well-being) 트렌드와 함께 영양학적 효능이 방송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이다.

지구온난화로 우리나라에서도 열대과일 재배가 일부 가능해졌는데, 파파야 재배면적은 2012년 0.2ha에서 2017년 3.47ha로 증가하였으며, 아보카도는 2012년에 일부(3.8ha) 재배되다가 작물생리와 재배기술이 까다로워 현재는 재배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²⁾ 코코넛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재배가 되지 않는 품목이다.

우리나라의 열대과일 전체 수입량 중에서 아보카도, 파파야, 코코넛이 차지하는 비중은 1% 수준으로 매우 미미하지만 앞으로도 이들 기타 열대과일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수입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2)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연구소 전화조사 자료임.

참고사이트

한국무역협회. <https://www.kita.net> (검색일: 2018.6.25)

FAO STAT. <https://www.fao.org/faostat> (검색일: 2018.6.26)

UN Comtrade. <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18.6.26.)